

사찰 공양주 이제는 '전문화 시대'

진관사, 7월 27~29일 제1차 공양주 전문교육 실시

한 사찰 식탁을 책임지는 공양주를 전문 교육함으로써 산사 음식 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공양주는 예부터 사찰 공양의식서 공양을 올리는 주체자로 매우 비중 있는 소임을 맡았다. 하지만 관리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최근 전문성이 흐트러졌다는 우려를 낳아왔다. 이에 공양주 기본 소양과 자부심을 기르고자 마련된 것이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주지 계호)는 7월 27~29일 산사음식교육장서 '제1차 공양주 채공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전국각지에서 모인 사찰 공양주 및 공양주 희망자 40여 명이 6조로 나뉘어 2박 3일간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강호진 진관사 학예연구팀장은 "참가자 3분의 2 이상이 공양주다. 그만큼 사찰 공양주를 위한 교육인프라가 부족해왔다"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공양주 전문성을 기르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9일에는 2박 3일간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조별 발표요식 만들기 열렸다. 유바라밀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 6계조를 제비뽑기로 대표적인 여름 산사음식 재료를 결정했다. △보시조-묵 △지계조-두부 △인욕조-가지 △정진조-감자 △선정조-새송이버섯 △지혜조-호박 등 각각 주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조리할 것인지 10분간 아이디어를 회의로 거친 뒤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됐다.

지도법사 도을 스님은 "준비 과정서 화합과 질서 정연함을 잘 지켰는지, 조리 과정은 청정했는지, 식감이 재료와 잘 어울리고 적당량을 요리했는지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큰 스님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발표 요리에 임하길 바란다"고 설여했다.

보시조는 2가지 묵 요리를 준비했다. 묵을 얇게 썰어 부쳐내 조청 소스를 곁들였으며, 다른 하나는 묵야채말이를 선보여 화려



서울 은평구 진관사(주지 계호)는 7월 27~29일 산사음식교육장서 '제1차 공양주 채공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한 색깔을 더했다. 지계조는 대표적 두부요리인 부침과 조림을 함께 내놓았다. 음식명은 '콩들의 속삭임'으로 "두부 원재료인 콩 본연의 맛을 내기위해 노력했다. 또 콩이 모여 두부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된 조원들의 마음을 담아 이름을 붙였다"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정진조는 감자 완자에 탕수 소스를 얹어 감자탕수를, 선정조는 새송이와 여러 채소를 곁들인 구절편을, 지혜조는 두부를 으개 채소와 섞어 호박 속을 채운 호박찜을 요리했다.

대상은 인욕조의 가지요리가 차지했다. 가지 속에 감자, 파프리카 등 여러 채소를 채워 솥에 찌낸 가지찜과 남은 가지 속으로 전을 부쳐 재료의 알뜰함까지 챙겼다. 계호 스님은 "모든 조 음식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훌륭했다"면서 "가지 요리는 한 입 크기로 작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있지만 맛과 아이디어가 돋보였다"고 평했다.

앞서 28일에는 이론·실습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마지(부처에게 올리는 밥) 교육 △스님상차림 교육 △진수·진배 교육 등을 실습했다. 특히 산사음식의 역사 및 개요를 비롯한 오신채 금

이론·실습 통합 기본 소양 다져 전문성 함양으로 자부심도 키워 6개 여름산사음식재료로 발표회 가지찜, 감자탕수 등 이색음식 '다제' 제2차 교육과정 계획 논의도

지 등 이론 교육을 배우며 기본 소양을 다졌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강릉 현덕사 공양주 신미숙(여·57)씨는 "공양주로 지내는 4개월 동안 산사음식을 책으로만 배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스님들께 배운 레시피로 요리하니 자연이 살아있는 맛이 느껴진다. 공양주로서 또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생긴다"고 후속해 했다.

아쉽게도 개선해야할 점을 묻는 질문에는 손사래를 쳤다. 신미숙씨는 "아쉬운 점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배울 게 많은 자리였다. 스님들의 친절한 가르침 덕분에 절에 들어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육생 중 청일점 허형범(남·56)씨는 같은 조 보살들을 도와 식재료를 나르고 씻

나라 연신 분주했다. 허형범(남·56)씨는 "공양주가 되려고 온 것은 아니지만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많은 요즘 가족과 친척들을 위한 건강식을 대접하고 싶어 참석했다"며 "여기서 배운 요리는 음식이러기보다 약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배춧잎, 표고버섯조림 등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맛있게 해주고 싶다"고 즐거워했다.

이날 발표회 뒤 진행된 회향식서 계호 스님은 "음식은 '지혜'다. 생각을 자주 일러켜 2박 3일간 배운 것 이상으로 응용해나갈 것"이라며 "1차 소양교육을 수료한 만큼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공양의 주인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진관사 사찰음식연구소 정미 팀장은 "수개월 내 2차 공양주 교육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1차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혹은 장 담그기, 장아찌 만들기 등 세부·심화 프로그램을 구성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진관사는 국행수륙제 진설 음식들을 복원해 진관사 국행수륙제(국자중요무형문화재 126호)를 설행한 바 있다. 현재(사)진관사산사음식연구소를 두고 전통산사음식 복원 및 산사음식문화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스카우트불교연맹 씩씩한 '여름나기'

7월 25~26일 화랑인성캠프 개최... 2백여 명 참가

숲 속 체험 및 통일전망대 견학을 통해 어린이 인성을 함양하고 통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캠프가 열렸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연맹장 송묵, 이하 불교연맹)은 7월 25~26일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서 '화랑 인성함양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인천불교회관, 조계사, 동원정사 등 서울·경인 지역 어린이청소년위원회 학생 2백여 명이 참가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숲속 명상 하이킹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캠프파이어 △도라전망대 및 제3땅굴 견학 등 진행됐다. 숲 속 하이킹은 음이온, 피톤치드(phytoncide) 등 숲의 건강기능인자를 활용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코자 마련됐으며, 도라전망대 및 제3땅굴 견학은 8·15기간을 맞아 남북 분단 현실을 직시하고 학생들의 평화·통일 의지를 일깨

우고자 기획했다.

남양주 심석중 최유진(여·3년) 학생은 "남북통일문제를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눈앞에서 북한을 보고 오니 감회가 새롭다"며 "가까이 두고도 만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통일이 빨리 이뤄지면 좋겠다"고 희망을 내비쳤다.

또한 서울 해성국제컨벤션고 김현진(여·1년) 학생은 "다른 절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보니 나와 다른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친해지는 과정 속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송묵 스님은 "어린이들이 자연과 하나 되는 체험 학습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을 깨닫고, 분단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통일 희망을 느끼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연맹장 송묵)은 7월 25~26일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서 '화랑 인성함양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초등학생 대상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했다.

선생님도 마음치유 '교사인성교육' 실시

동국대 불교아동교육연구소, 8월 22~23일 경주캠퍼스서

인성교육 열풍이 비단 학생 대상 뿐 아니다. 마음치유 등 다양한 명상법을 통한 교사인성교육이 열려 눈길을 끈다.

동국대 불교아동교육연구소(소장 이수경) 및 평생교육원은 8월 22~23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 대강당 및 백상관 컨벤션홀서 2015학술세미나워크숍 '교사의 행복한 마음정원 가꾸기'를 진행한다.

불교아동교육연구소는 "다양한 명상실습과 예술명상을 실시해 교사의 마음치유와 조화로운 인성 함양에 일조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행복한 교육기관 만들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의 (054)770-2598 FAX (054)770-2283

1박 2일간 진행되는 워크숍 주요프로그램

박아름 기자

만해 정신 기리며 '님의 침묵 백일장' 개최

8월 14일 인제 백담사서... 장원 상금 3백만 원

만해 선생의 문학 정신과 애국심을 되새기고자 매해 열리는 만해백일장이 올해도 찾아온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하 만해선양회)는 8월 14일 오후 1시 인제군 백담사 만해

마을서 '제4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을 주최한다. 시·시조 2부문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백일장 시제는 대회장일 현장에서 발표된다.

심사는 문단 중인 문인들을 통해 이뤄지

며 추후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이 진행된다. 시상은 △장원 1명 강원도지사상 상금 3백만 원 △차상 1명 인제군수상 상금 2백만 원 △차사 1명 인제군회의의장상 상금 1백만 원 △장려 10명 인제신문사장상 상금 각 1십만 원 등 마련됐다.

만해선양회는 "해마다 찾아오는 8·15

주간에 인제 만해마을서 펼쳐지는 만해 백일장을 열게돼 매우 뜻깊다"며 "만해 선생의 문학 정신을 되새기고, 선생의 울퉁은 나라 사랑 정신이 꽃 피우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여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는 인제신문누리집 홈페이지(www.okinjenews.co.kr)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7월 28일~8월 13일 오후 5시 이메일(injenews@hanmail.net) 제출하면 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공 고

(사)한국불교본정토종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활동, 이·취임 또는 임명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은 본 법인의 이사장 및 임원의 동의 또는 인정, 승인 없이는 모든 사항은 무효이며 적발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 래

- 1) 단체명칭사용 (사단법인 한국불교정토종연합회) 유사명칭 포함
 - 2) 종단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
 - 3) 법계수여,임명, 이.취임 (종단지부등 회원가입의 관련된 모든업무)
 - 4) 사단법인 한국불교정토종연합회 명칭은 2015년 6월 22부로 말소로
 - 5) 마크 외 한국불교정토종 현판 및 간판 사용금지
- 상표등록은 한국불교본정토종에 있으므로 유사명칭으로(사용시 민,형사상 처벌) 함.

2015년 8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불교본정토종

이사장 : 안 태 원 (도우) 총무원장 : 신 재 학 (혜각)
이 사 : 주 선 규 (해조) 외 5인

불기 2559년 대한불교대승종 종도수련 대법회

귀의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종단의 위상과 종도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종헌종법의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기 종도수련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일 시 : 불기 2559(2015)년 9월 7일(월) 오후 3시 - 9월 9일(수) 오전 11시
- ◆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개인 세면도구 등
- ◆ 장 소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843-8번지 천지암 (055-862-6470)
- ◆ 접수 및 문의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 원 (055)253-1074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010-4528-3247
- ◆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대승종 중앙 종의회·대승종 교구총무원

※ 합당한 사유없이 불참시는 교육원법 제6조에 의거 법계고시 및 종단임직에 제한 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법기 무여 합장